

##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후기

□ 제목 :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변화'하는 '나'

□ 참여 프로그램 또는 행사명

- 지역사회/산업과 연계한 통합형 공연예술 Performing Arts & Gala Show 개최
- 창업 소모임 운영
- 지역사회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후기내용

이번 학기는 내가 보냈던 그 어떤 학기 중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사회로 나아갈지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제시해주었기 때문이다. 총 세 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어느 프로그램이 더 우수하다고 할 것 없이 모두 좋은 양분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 가슴 깊숙이 뜨거운 마음이 샘솟는다.

먼저 'HUB'라고 불리는 '지역사회/산업과 연계한 통합형 공연예술 Performing Arts & Gala Show 개최' 프로그램의 소감이다.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패션 디자이너'이자 '편집 디자이너' 그리고 '촬영 스텝'까지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이번 쇼에서 팀원들과 내가 맡은 스테이지는 '문명의 새벽(The Dawn of Civilization)'이다. 이 쇼를 위해 함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진행할 무용수도 구해야 했고, 디자인부터 원단구매 그리고 제작까지 팀원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진행해야 했다. 무용수는 우리 학교 무용과에서 좋은 기회로 함께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협업'이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서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무용 의상에 있어 효과적인 연출이란 무엇인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다음에도 이런 협업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조



금 더 능숙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서 말한 디자인과 원단구매 과정은 팀원들과의 조화 그리고 협동이 굉장히 중요했다. 하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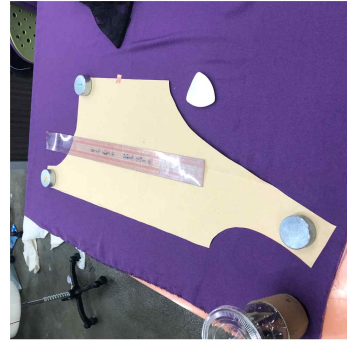


스테이지에 여러 디자이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견 충돌은 어찌 보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직접 동대문종합시장에 가서 시장조사도 하고, 그에 따라 원단도 고르고 직접 산업현장에 나간 것만 같아 왠지 모를 뿌듯함이 있었다. 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옷은 우리 학

부 모델연기 전공과 함께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 당일 날씨가 꽤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진행되었다. 나는 촬영 스텝의 역할을 맡았기에 얇은 옷을 입은 모델들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등 상대측에서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진행 과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였다. 모든 촬영이 끝난 후 나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우리 전공에서는 'HUB' 쇼를 위해 당일 행사의 보조를 담당하는 진행팀, 화보 촬영과 포스터제작 그리고 도록의 편집과 쇼 당일 촬영 담당자의 어시스트와 그 외의 촬영 역할을 맡는 편집팀, 무대의 구성과 장치들을 무대기술전공과 협업하여 체크하는 기술팀, 모델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미용예술학부와 함께 전담하는 헤메(헤어 메이크업 줄여서 헤메)팀, 전반적인 쇼의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팀 그리고 SNS를 통한 홍보를 하는 홍보팀까지 총 다섯팀이 모여 모든 업무를 진행한다. 그중에서도 나는 편집팀 팀원으로 활동했다. 쇼 이전에는 포스터 시안을 짜고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화보 촬영 이후에는 도록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고 편집을 도왔다. 마치 잡지사의 편집 디자이너가 된 기분이었다. 이 쇼가 아니었다면 평상시에는 해보기 어려운 일인데, 많은 것을 알게 해주는 쇼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대망의 쇼 당일에는 카메라로 현장 곳곳을 촬영하며 한번 더 촬영 스텝의 역할을 해냈다. 쇼가 끝나고 나니 시원섭섭하면서도 많은 경험의 조각들이 쌓이게 되어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은 창업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기록해 보았다. 한 학기 동안 창업 소모임 '나비효과'라는 팀의 팀장으로 활동했었다. '나비효과'라는 팀의 뜻은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폭풍우같이 큰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아이디어

어가 효과적인 제품을 만들어 긍정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회의를 통해 '편안하면서도 화려한 나이트가운(night gown)'이라는 제품의 컨셉을 잡았고, 제품의 생산과 판매 이전 단계까지의 과정에 대해 우리 스스로 학습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막연하기만 했던 나의 진로와 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창업을 통한 '패션 브랜드 CEO'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 이전의 나로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였다. 만약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전의 나처럼 계속 꿈이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다. 이 프로그램은 '창신동 K-CULTURE 1'이라는 과목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뮤지컬 의상 프로세스(process)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우리 사회 창신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봉제 명장님들을 만나며 그들의 경험에 대해 듣고 봉제 기술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우리나라에는 뛰어난 봉제 기술을 가진 명장님들이 매우 많지만 이와 관련된 시장 경제가 죽어있어 아쉬움이 컸다. 이를 살려 우리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꼈고 앞서 말한 내게 있던 큰 변화인 패션 브랜드 CEO라는 꿈에 있어서 명장님들과의 협업을 접목시킨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까지 도달하였다.



나는 올해 참여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느끼게 해준 특별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을 경험한다면 명확한 미래를 그리고 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들을 시발점으로 '창업'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조금 더 구체화 시켜 나만의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용된 이미지는 해당 프로그램 과정 사진입니다.)